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 민 정¹⁾ 김 유 나²⁾ 조 한 익³⁾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 경험은 어떠한지, 이들의 경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G지역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4명의 교무행정원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료는 면담, 참여관찰, 현장노트, 연구일지 등이며, 참여자들의 경험은 시간적, 공간적, 장소의 3차원 내러티브 탐구공간에 따라서 탐색하였다. 연구수행절차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현장텍스트 구성하기, 현장텍스트에서 연구텍스트로 전환하기의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내러티브를 풀어내고 이들의 학교생활 경험의 의미들을 도출한 결과 업무성취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학교에 근무한다는 자부심, 편견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기, 관리자에 맞춰가는 업무 행동들, 불분명한 업무분장 속에서 늘 어가는 업무들, 학교 정규직과 차별된 처우 환경, 학교업무 전문가로 거듭나기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원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에 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교무행정원, 학교생활, 내러티브 탐구

* 이 논문은 제1저자인 김민정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1)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2)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3) 교신저자 : 경상국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E-mail: h1652@g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등학교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하여 학생들의 기초생활습관을 잘 잡아주고 기초학력을 튼튼히 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혁신과 창의성 등의 중요한 역량이 요구됨에 따라서 교과수업 활동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방과후 교육, 각종 공문과 교과 외 업무 등으로 지쳐가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 행정업무 경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교원업무경감 정책(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부, 2015, 2016)의 일환으로 교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무업무를 지원하는 인적 자원을 학교현장에 배치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 초기에는 교무보조원이라는 신분으로서 불안정한 직책으로 학교에 배치되었으나 이후 교육공무직이라는 학교 정규조직의 일원으로 학교현장에 배치되었다. 교무행정원은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교원업무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교무행정팀에 배치된 교무실의 행정원을 말하며,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교육실무원, 교육·업무실무원 등 다양하게 불린다(조상식 등, 2016).

교무행정원은 교육공무직으로서,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가지 필수업무나 교

원들의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상 직원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지위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시·도 교육청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채용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간의 처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정규직과의 보수격차가 커지는 등 임금체계에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교무행정원의 실질적인 업무 특성 및 근무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학교 관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분장이 모호하여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본연의 업무 이외의 별도 업무를 비롯한 개인적 업무의 부탁, 비인격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김보영, 2015).

이에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교무행정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직의 법제화에 대한 여론이 대두됨에 따라 이들의 처우를 둘러싸고 교사 및 정규직 공무원들과 임용 및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 논란과 갈등이 과열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 간의 채용 형태와 부여된 업무책임이 다른 만큼 교직원으로서의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학교 현장 내에서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이다. 교무행정원의 신분과 처우는 이전에 비해서 나아졌지만 처우개선에 관한 불씨는 남아있다. 하지만 교무행정원은 학교에서 더 이상 잡무를 수행하는 보조인력이 아닌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의 핵심적인 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구자 중 한 사람은 2020년도 G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제2회 교육공무직 공개채용에 합격하였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초등학교 교무실에 8개월째 근무 중인 교무행정원이다. 처음 발령을 받았을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업무의 대부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과 및 실적 위주의 강도 높은 업무를 했던 터라 교내 물품 및 소모품 관리, 가정통신문 복사, 학교행사 지원, 민원 응대 등의 단순 업무이면서 누군가의 지시나 필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교무행정 업무는 쉽게 느껴졌다. 그러나 업무분장표에는 없는데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든지, 교사 또는 행정실에 지정하기 애매한 업무들이 교무행정원에게 주어질 때는 교내에서 교무행정원의 위치가 제일 아래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의 처우개선과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방과후학교의 모든 업무가 갑자기 교무행정원에게 주어졌을 때는 학교구성원으로서 소외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방과후학교 업무와 관련하여 교감선생님과 면담, 교직원회의, 부장 선생님들 회의, 교무실 회의까지 몇 차례의 회의를 하는 등 나름의 합의점을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 결국에는 교무행정원이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게 되었다.

교감선생님은 강제적이지도 않았고, 교무행정원의 의사를 존중해주셨고 물어봐 주셨다. 하지만 회의는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다수였고, 교무행정원은 둘뿐이었다. 교무행정원의 입에서 먼저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겠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것만 같아 그냥 하

겠다고 했다. 그 회의를 끝으로 교무행정원을 제외한 모두가 평화로워졌다.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게 되면서 잡무는 많이 제외되었다. 하지만 학년 초에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고, 방과후학교 업무에 기존의 업무까지 다 해내려니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방과후학교 업무만이 아니었다. 교무행정원을 비롯한 교내 교육공무직의 시간외수당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동안 교무행정원이 시간외근무를 할 만큼의 일도 없었고, 가끔 시간외근무를 했더라도 별다른 수당을 받지 않고 일을 했던 것 같았다. 연구자가 시간외근무를 하는 동안 누구도 시간외근무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연구자가 궁금해서 행정실에 물어봤던 것이 계기가 되어 그제서야 교육공무직의 시간외수당이 편성되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마주해가면서 표면적으로는 평등해보이고 민주적인 듯 하지만 내면적으로 겪는 불평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교사나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지원의 형태로 일을 하는 교무행정원의 역할 및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명확한 업무분장이 되어있지 않았고, 교사업무 제로화를 위해 구성된 업무지원팀에서 유일한 비교사인 교무행정원이 제대로 된 업무 협의를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였다. 일방적인 업무지시는 아니었지만 소통과 합의의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위축과 거리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교사가 교육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업무 적정화에서 현재의 교육활동 전담 여건 조성에 이르기까지, 처우개선이나 근무환경에 대한 변화 없이 교무행정원의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연구자들은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교무보조인력에 대한 운영실태와 성과에 관한 연구(이길환, 2018; 이수연, 2014; 최용석, 2015; 한상훈, 2015)를 비롯하여 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 및 근무 여건에 관한 연구(김미성, 2018; 한장석, 2016)에서 교무행정 지원인력 제도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전문적인 교육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명확한 업무분장 등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보았지만 교사들의 견해가 대부분이어서 교무보조 인력과의 인식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교무실무사나 행정실무사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김보영, 2015; 이해영, 2014; 장현용, 2015) 등이 있지만 이 당시는 공개채용의 형태가 아닌 학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학교회계에 속한 비정규직원들에 관한 연구들 뿐이었다. 또한 이 시기는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전문행정업무보다는 사소한 업무들이나 기타 잡무들을 더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학교의 관리자나 교사 그리고 교무행정원들이 생각하는 역할에 대해 현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므로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이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교무행정원들의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로

Connelly와 Clandinin(1990, 2000)이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내러티브를 탐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삶의 형태이며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므로(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이 초등학교 교무행정원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여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보았다. 내러티브 탐구방법에서 지식은 내러티브적이며 관계적인 개념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다시 경험하면서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나가며, 나아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및 독자의 개인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연구자는 그 삶을 기술하며 기술된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써 내려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교무행정원으로서 자신들의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연구자가 연구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교무행정원으로서의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무행정원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내러티브로 풀어내고 이들의 경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업무에 대한 긍지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문제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내러티브 탐구방법은 개인 및 소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가능한 그대로 기술하여 오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작은 사례 속에서 경험의 실재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으므로 소수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과 연구자 간의 신뢰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는 관계형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이는 곧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한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Denzin & Lincoln, 2018; Miles & Huberman, 1994)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연구자를 포함한 네 명의 교무행정원으로, 현재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무행정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교무행정원의 정체성과 처우에 대해서 연구자와 평소에 풍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로서, 최단 8개월에서 최장 13년 이상의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선정된 3명의 교무행정원에게 연구의 취지를 밝히고 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연구참여를 승낙한 총 4명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2. 연구절차

현장에 들어가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현장에 들어가기 단계는 연구자가 연구의 동기를 생각하고,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을 찾아 자료 수집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자 및 연구참여자들과 만나면서 현장에 익숙해지는 단계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연구 동기는 대부분 연구자의 개인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에서 나오게 됨으로 연구자는 자신의 인

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참여자(가명)	성별	연령	근무 기간	채용형태
이궁정	여	52세	13년	무기계약 전환
조강한	여	48세	8년	무기계약 전환
김행복	여	34세	8개월	공개채용
정성실	여	39세	8개월	공개채용

생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과 내용, 자신의 특정한 관심과 그 관심의 근원을 성찰하고 그것에 대한 자전적인 경험적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연구자 외에 다른 참여자를 포함하는 내러티브 탐구는 탐구의 출발점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자 중 한 사람은 G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2020년 9월부터 교무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8개월간의 경험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신규 교무행정원의 경험을 나타낸 이야기 또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한 현장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에서부터 내러티브 탐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도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해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삶에서 나의 이야기를 쓰고, 반복하면서 자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내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텍스트로 이동하는 단계는 내러티브 탐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수집을 하며 현장텍스트를 쓰는 일을 생각하는 단계이다(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참여자들은 각기 근무 기간이나 근무 중인 학교는 달랐지만 교무행정원이라는 공통점으로 본 연구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참여해주었다. 또한 연구자와 함께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은 이들에게도 의미있게 다가왔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으로 들어가 함께 몰입하며 이야기의 장소에 머물렀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연구참여자들이 지속적인 경험의 일부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말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참여와 녹음에 대하여 연구자와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동의하였다. 참여자들과 대면 및 비대면으로 나눈 대화를 녹음한 자료들을 연구의 주된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모두 전사 작업 후 문서화하여 보관하였다.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며, 자료수집은 약 7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네 명의 연구참여자와 각각 2~3회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회당 100분에서 1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교무행정원으로 근무하는 경험에 대해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고자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였다. 인터뷰 가이드의 내용은 크게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의 경험,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이 된 계기,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으로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집중하기 위해 연구자는 질문방식에 자율성을 가지는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이야기 전체의 배경 안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큰 특징이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와의 반구조화 된 면담이 전체의 맥락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면담 과정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유도질문은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연구자와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교무행

정원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심도있는 면담이 진행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매회 심층면담의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면담이 진행된 후에는 면담내용을 직접 전사하였다. 면담에 대하여 느낀 점이나 면담 후 부족하다거나 궁금한 점을 연구자 저널을 통해 작성하여 추후 면담을 준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의 내용을 전사한 녹취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정리한 대화록을 비롯하여 연구참여자들을 관찰하며 기록한 현장 노트 그리고 연구자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한 연구자 저널 등을 수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총 300매의 분량이 되었으며, 연구자 일지 1권을 비롯하여 현장노트 1권이 연구에 활용되었다.

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로: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

이 단계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므로, 연구자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참여자 개인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나선형적 절차에 따라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분석절차에서 전사된 자료와 저널을 통해 수집된 현장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학교생활 이면에 드러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인식과 정서적인 반응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찾아내었다. 이후 학교생

활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들을 가려내어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맥락의 이야기들을 함께 묶고,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주제어들로 범주화시켜 나가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해나가면서 교무행정원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을 염두에 두고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연속성과 장소의 개념으로서 상황, 그리고 이 연구가 연구자를 비롯한 연구참여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와 같은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마주해나가면서 연구자 스스로 지속해서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쳤다.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에서 연구자는 교무행정원으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 자신을 참여자들의 경험에 융화시키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전환하여 교무행정원으로서의 경험과 사회를 연결해가는 과정을 거쳤다. 학교생활에서 겪는 연구참여자들의 개인 및 사회적인 이슈들을 감정이나 희망과 같은 내적 상태와 환경적인 외부 요소들과 함께 끊임없이 조망하면서 이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들을 살펴나가며 교무행정원으로서의 경험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염두에 두며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

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경험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구 참여자들과 함께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된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직접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에서 교무행정원으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자는 교무행정원으로서 현장에의 참여와 관찰을 통해 연구참여자와 이미 깊이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연구참여자와의 가까운 관계는 참여자들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으로도 자신들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연구참여자 역시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들의 단어와 개념에 의존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며 이해하는지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 각각의 개인적 내러티브의 조화를 통해 연구참여자나 연구자 자신의 이야기로 여겨지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자가 가진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흐리거나 연구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참여자와 심층면담이나

대화를 마치고 나면 즉시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자료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나가면서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 면담에서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면담의 내용에 관해 연구참여자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 직접적인 수정 작업을 함께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무행정원들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 전문가와의 끊임없는 협의와 검토를 하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윤리적인 부분에 관해 고려하였다. 먼저, 내러티브 탐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은 연구참여자의 자기노출이다. 그러므로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철저히 윤리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 연구자는 본 연구 목적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로부터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 중에 언제라도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하였다.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에게 본인이 원치 않는 내용은 연구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추후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질적 연구자로서 사는 동안 자신의 삶과 연구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 대해 관계적 존재론을 바탕으로 한 돌봄의 윤리가 필요하다(Clandinin, Caine, & Lessard, 2018; Noddings, 1984). 이에 연구자들은 관계적 존재론과 더불어 관계적 윤리를 고려하면서 이를 연구 내에서 충족하

였는지, 이들의 삶에서 관계적 윤리를 고민하고 명명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교무행정원들의 학교생활 경험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로부터 교무행정원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의미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 해석, 의미를 포함하여 시간성, 사회성, 장소의 3차원적 맥락에 위치하여 살펴본 결과 이들의 학교생활 경험에서는 교무행정원이 된 계기,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뿌듯함, 끊임없이 부여되는 업무, 밀려오는 차별과 회의감, 미래에 대한 기대라는 의미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교무행정원이 된 계기

연구참여자인 이금정과 조강한은 이전에 학교에 들어와서 업무보조를 하다가 교무행정원이 된 경우로 선발시험을 거치지 않고 아는 사람의 소개나 내부 인맥으로 채용되거나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의 구인공고를 통해 지원하였다. 이들은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김행복과 정성실과 같이 최근에 교무행정원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공채형태의 시험을 통해 교육공무직으로 바로 채용이 되고 있었다.

2008년, C시에 있으면서 특수실무사 하

려고 평생교육원 거기 이렇게 수료를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그때는 아는 사람이 없으면 못 들어가더라고 학교공고가 나서 가도. 그래서 그냥 좀 기다린다 해야되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교 방과후를 들어갔었는데, 다니다보니까 아이가 어리니까 아침에 가서 오후 전에 퇴근하는 그런 게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찾다가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공고가 떠서 바로 왔어요. 공고보고 바로 면접보고 일을 시작했지. (2021.04.09. 이금정 심층면담)

저는 일반 중소기업체 일을 하다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하다가 잠시 집에서 쉬고 있는 타이밍에 그런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학교에도 이제 그런 자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과학실험원도 있었고 교무실에 그 구회계직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일단 시간상 좋을 거라는 생각에 들어가기는 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그렇게 들어갔어요. (2021.03.20. 조강한 심층면담)

내가 세상에 태어나 세 번째로 잘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두 번째는 내 딸을 낳은 것, 세 번째는 교무행정원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비록 내 마음은 불안정하고 불안전했지만,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남편도 직장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머무르지 않고 도전했다. 교무행정원 시험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처럼 엄청난 시험은 아니지만 나에게에는 그 이상의 의미이다. 우리 가족에게도 내가 교무행정원이 된 건 직업의 의미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엄마가 나와 함께 올랐던 건 그 때문이 아닐까. (2021.08.01. 김행복 메모)

나는 결혼 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낮, 밤 없이 일하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그만두었다. 이후 중소기업 건설회사, 시청,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공개 채용 시험에 합격해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2021.03.20. 정성실 메모)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뿌듯함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의 어린 시절의 꿈과도 관련이 있었다. 비록 연구참여자들이 임용고사를 거쳐 교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뿌듯함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가 되면 퇴근하고,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또 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면 주변의 시선 또한 긍정적이라며 학교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면담 과정에서 학교, 학생에

대한 애정도 보였다.

어릴 때 꿈이 나는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꿈을 공부를 안 해서 못 이뤘지만 대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무행정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학교에 안 들어왔다면 지금 이 나이에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맨 처음 교무보조라고 불렸을 때 보다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뿌듯하지. (2021.04.22. 이금정 심층면담)

딸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딸은 계속 저를 지켜봤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쪽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제가 컴퓨터를 고치러 교실에 가거나, 생기부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가거나 했을 때 딸아이의 반에 가는 거죠. 그러면 딸에게는 엄마가 컴퓨터 기사였다가, 사진사였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딸이 방송부에 지원을 했는데 카메라맨에 지원을 했더라구요. 지원 동기가 뭐냐면 엄마가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니 멋져보여서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맡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2021.04.17. 조강한 심층면담)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참 친절하고 상냥하다. 모두가 상담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작은 일에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해준다. 일을 하나 배워서 해놓으면 잘했다고 칭찬

해주고, 실수를 하면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준다. 정말 좋았던 건 퇴근 시간! 오후 4시 30분에 퇴근했다. 정말 칼 같이 나서도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고, 교장선생님도 칼퇴하셨다. 일찍 학원을 갔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했다. 엄마가 일찍 오니 너무 너무 행복하다는 아이를 보니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게 워라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020.12.15. 김행복 메모)

항상 뿌듯한데, 사실, 그리고 뭐든 안 되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찾거든요 교실에서 찾고, 교감 쌤도 찾고, 행정실도 찾고, 그래서 딱 가면 별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서 파란 창을 띄워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것도 제가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해결했을 때 엄청 감사해주세요. 너무 고맙다고 나의 시간에 대해서. 매번 그때 뿌듯한 거 있잖아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해결사 된 것처럼 내 손은 매직캔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2021.03.10. 정성실 심충면담)

끊임없이 부여되는 업무

교무행정원의 업무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 잡무를 비롯한 수시로 들어오는 업무요청을 거절하기 어렵다. 교무행정원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한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벌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무행정원의 몫이 됨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의 업

무경감을 위해서 배치된 교무행정원이다 보니 교사들이 업무를 줄여가려고 하다 보면 학교에서의 업무들은 끊임없이 교무행정원들에게 부여되고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혁신학교, 행복학교 등을 운영하면 많은 업무들이 교무행정원에게 들어온다.

작년에 전보를 왔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종이앱이라고 해보지도 않은 걸 선생님들끼리 의논해서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왜 개설을 안 했냐고 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하고. 한두 달은 고생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안 해서 다행이지 왔으면 어휴. (2021.04.08. 이궁정 심충면담)

점점 책임을 부여를 해서 너희도 책임 있는 일을 하면서 이만큼의 급여를 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긴 들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확 갑자기 늘었잖아요. (2021.03.20. 조강한 심충면담)

방과후실무사 채용 공문이 온 이후, 모든 화살이 우리에게로 날아왔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눈치였다.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눈치만 보고 계셨다. 우리가 해줬으면 하지만 차마 먼저 말을 못 꺼내고 있는 느낌이었다. (2021.03.10. 김행복 메모)

원래 방과후학교 운영이 교감 선생님께서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감선생님께서 하시던 방과후학교 운영이 저한테 왔어요. 그게 여태까지의 가장 충격이었던 일이에요. 하라고, 그냥 하라고. 처음부터 교감 선생님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획도 네가 세워라, 강사도 네가 뽑아라. 제가 원래 불편하고 안 좋은 감정들을 되게 빨리 소비해버리거든요. 다 잊어버려요. 영원한 게 없어. 근데 방과후학교는 너무 컸어요. (2021.06.10. 정성실 심층면담)

밀려오는 차별과 회의감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겉으로는 공평한 것 같으면서 차별들이 많이 느껴진다. 이긍정은 교무보조로 근무하게 된 초창기에 일부 선생님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 서운함을 경험했다고 하였다. 당시 교무실에서 교감선생님, 교무선생님과 함께 근무를 했는데, 이 두 분이 안 계시면 본인이 교무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다고 표현하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조강한은 학교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하며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일처럼 생각하고 했던 업무도 많았다고 하였다. 교내에 갑자기 일손이 필요할 때는 업무를 하다가 일을 도우러 가야 하는데 본인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방학 중 비근무의 형태로 일을 할 때는 급여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학교 일을 도와야 할 상황이 생기면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책임자가 급여를 챙겨주겠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급여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무급으로 일한 경우도 많았다고 하였다. 김행복은 한 교사로부터 자기 앞으로 도착한 빵을 다른 교사들에게 나누어주라는 지시를 받고 기분이 언짢은 일이 있었다. 비단 일상 생활에서의 사소한 일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성실은 일을 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대신 일을 해주었지만 돌아오는 건 미뤄놓은 본인의 업무만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고 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잘 대해주시고 좋은 분들이지만 일이 생길 때에는 교원 편이라며 회의감을 느꼈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그런 게 있어. 내가 경조사를 해가지고 과일이라든지 떡을 가져오면 그냥 교무실에 던져놓고 나눠주라고 옛날부터 그랬어.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떡 배달하러 온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택배 온 것도 이렇게 갖다 달라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작은 학교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교무실에 모이면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빵을 좀 사왔잖아? 그러면 먹어보란 말도 안 해요. 자기들끼리만 딱 앉아서 먹어요. 교무실에서.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2021.04.22. 이긍정 심층면담)

인정상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거절할 수 없는 거잖아요. 관리자가 급여를 챙겨줄 거라고 해서 일했는데

이게 학교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회의감이 많이 들었죠. 비록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일이 하기 싫어지더라고 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잊혀지기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제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2021.04.24. 조강한 심층면담)

직군을 다르게 선택하면 시스템 안에서 충분히 프로그램을 따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방식을 안 넣었다는 거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 이걸 안 넣느냐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변경해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얘기하신 분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1.04.18. 김행복과의 대화록)

돌봄 선생님이 파업했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원어민 영어수업 보조도 대신 들어가고, 애들이랑 노느라고 시간 가는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런 건 제가 대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대교를 들어간 거잖아요. 같은 공무원이지만 상담 선생님은 대교비를 받아요. 제가 품의를 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없었어요. (2021.06.03. 정성실

심층면담)

미래에 대한 기대

경험이 많은 이금정과 조강한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교무행정원으로 일하고 싶어했다. 이들은 급식보조, 전산실무원, 행정실 사무행정원을 거쳐 교무행정원이 되었다. 매년 재계약을 해야 했고,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던 시절부터 근무를 한 것이다. 이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난 이후 정년보장에 대한 기쁨과 기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공채형태의 시험을 통해서 교무행정원이 된 김행복과 정성실은 자신들은 교사를 도와주는 전문적인 교무행정원이라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교무행정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탐색하다보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아가 능력있는 사람들이 교무행정원으로서 학교에 자리를 잡아나간다면 처우개선에 있어서도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보았다.

우리 교무행정원들도 정말 내가 뭐 몸이 안 좋거나.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는 거 아니면은 한 62세나 63세까지 있잖아.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도 내 욕심이지. (2021.04.29. 이금정 심층면담).

우리가 60세까지 할 수 있을까?. 그때는 교장, 교감선생님들 나이가 나보다 어릴 텐데. 우리가 그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친정엄마가 하신 말씀이 “그 나
이 돼봐라. 더 하고 싶을걸?” 이라고 말
씀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긴 해요.
(2021.04.17. 조강한 심층면담)

내 권리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야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다는 생
각이 된다. 나는 침묵하지 않고 고여있지
않을 것이다. 늘 공부하고 배우고 나아갈
것이다. (2021.04.30. 김행복 메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교무행정원들이 이런 능력도 있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
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들도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나서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
고요. 해봤자 모른다고. 여태까지는 그런
대접을 받아왔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선생님도 알게 되고 처우개선
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2021.06.10. 정성실 심층면담)

2. 교무행정원들의 학교생활 경험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앞서 풀어낸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이 교
무행정원으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따라가면
서 경험의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들은 교무행정원들의 이야기와 내용들을 반복
적으로 살펴보면서 탐구된 경험들이 참여자들
에게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해석함으로써 경험
의 의미들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내러티브에
서 시간성, 공간성, 사회성이라는 다각도의 조

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연구자들은 무기계약
직으로 학교에 근무한다는 자부심, 편견과 소
외감 속에서 살아가기, 관리자에 맞춰가는 업
무 행동들, 불분명한 업무분장 속에서 늘어가
는 업무들, 학교 정규직과 차별된 처우 환경,
학교업무 전문가로 거듭나기의 6가지 경험의
의미들을 도출하였다.

무기계약직으로 학교에 근무한다는 자부심

초등학교에서 교무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
는 연구참여자들은 교무행정원이 되기 전 비
정규직 근로자로서 안정된 영속적 고용을 보
장받을 수 없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었으나,
무기계약직으로 교무행정원이 되고 난 후 정
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어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교육기관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일조한다는
뿌듯한 마음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되면서 교무행정
원의 업무가 늘어났지만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착실히 수행해나가면서 관리
자나 주변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학
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조직구성원이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
할수록 직무만족도와 업무생산성이 높아지고
소진을 낮춘다는 연구(Baruch-Feldman, Brondolo,
Ben-Dayana, & Schwartz, 2002)와 주변의 인적자
원으로부터 관심, 인정, 칭찬을 받거나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
람에 비해 스트레스나 소진을 적게 경험한다
는 연구(유미나, 신나리, 2013)에서처럼 동료들

로부터 교무행정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인정과 지지를 받는 것은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교무행정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교무행정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생계유지의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갔다. 전문직이나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환경과 교무행정원이라는 직업의 이름은 단순히 정년보장이라는 이점을 넘어 연구참여자들에게 삶의 가치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기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도 내가 40에 들어왔으니까. 이 나이에 학교라는 공간에 안 들어왔으면 또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월급은 작지만 그래도 아침에 출근하고 오후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또 아이하고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위안을 삼았죠. 그리고 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면 다들 좋게 보더라구요. (2021.04.08. 이궁정 심층면담)

외부에서 어디 다니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학교에 있어요. 라고 대답했을 때는 내가 자신이 있더라고요. (2021.04.17. 조강한 심층면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마음이 너무 편하다. 만60세까지 학교라는 공간에 소속이 되어 일을 할 수

있다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공간에서 일을 하니 몸도 마음도 절로 맑아지는 것 같다. (2020.09.03. 김행복 메모)

급여가 꼬박꼬박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여태까지 되게 불안정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이번 달에는 급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었고, 방과후강사를 할 때도 이번에는 수업이 줄었는데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직업 만족도 최상. (2021.06.03. 정성실 심층면담)

편견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기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조직문화가 발전성과 효율성을 양산해냄에 따라 학교에서도 민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교직원 간의 큰 차별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에는 학교의 잡무는 교무행정원이 담당해야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때로는 학교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관리자나 정규직 교사들의 개인적인 업무를 대리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무행정원으로서의 경력이 오래된 연구참여자들일수록 학교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 빈도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갈등은 크게 없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과 내면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교원이고 교

무행정원은 각 학교에 따라 1~2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므로 전체 구성원에 비해 인원이 소수에 그쳐 학교조직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교원들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박은경, 2019). 연구참여자들에게 소속의 불분명함은 소외감과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직장 내 차별은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로 근로자의 일과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문화가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을 근절해 나가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나 학교현장에서는 보수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무기계약 신분의 교무행정원을 향한 무시와 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교 내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해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하는 공정한 절차가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와서 간식 싹 먹고 종치면 그냥 가요. 그 뒷설거지는 누가 해요. (2021.04.08. 이궁정 심층면담)

어딘가 떨어져 있는, 탈락된 느낌. 그런 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행정실에서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나는 행정실 소속도 아니고 교무실도 아니고 선생님들과의 소속, 이제 또 모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거기서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난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직군은, 나의 직군은 하나인 거니까. 내가 어딘가에 가서 기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나

혼자 깨끗하게 있으면 괜찮지만 또 행정실하고 나의 관계가 좋으면 이게 괜찮은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거예요. (2021.04.17. 조강한 심층면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선생님들은 바쁘다는 생각을 내 마음속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같다. 선생님들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바쁘다.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다. (2021.04.22. 김행복 메모)

행정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교무실에는 두 명이나 앉아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올해 업무분장할 때 기록물 관리를 교무실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교장 선생님께 행정실 업무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해볼 수도 있지.”라고 하시면서 행정실 편을 들었어요. (2021.06.03. 정성실 심층면담)

관리자에 맞춰가는 업무 행동들

학교조직 내에서 교무실은 학교와 관련된 모든 업무정보와 자료들이 오고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원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교직원 간의 의사소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학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교무실이라는 공간이 관리자와 함께 근무하는 곳이고 교무행정원의 업무가 관리자에 의해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교장,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는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관리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던 과거에 비해 관리자의 우호적인 반응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자의 특성과 업무에서의 역할 수행과정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학교생활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대인관계나 업무에서 충돌을 회피하고자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학교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구성원의 참여와 개방을 유도하여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지도력이 요구되며, 교무행정원을 비롯한 학교구성원 전체가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예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같이 근무했던 교장 선생님은 정말 터치하나 안 하시고 일단 해라. 뒤에 책임은 내가 질게. 그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교장 선생님은 본인이 다치기가 싫은 거야. 못하게 하는 게 많았지. 또 한 교장 선생님은 딱딱 끊어는 주시는데 늘 우리 하는 일을 고깝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뭐든지 내가 잡고 흔들어야 되는데 적응을 못하니까 결국은 다른 학교로 가셨지. (2021.04.29. 이궁정 심층면담)

내가 말했을 때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제 제가 수용하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랑 그리 긴 기간 오래 있지 않거든요. 기간을 떠나서 그분들을 맞춰주는 게 나도 살고 그분들도 힘들지 않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힘들어지지 그분들은 힘들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힘들어져요. 저는 그냥 수용해버려요. 그냥 맞춰드리는 거죠. (2021.04.24. 조강한 심층면담)

학기초에 방과후학교를 맡게 되면서 기타 잡무를 많이 제외시켰다.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들께 교무행정원에게 잡무를 맡기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2021.06.03. 김행복 메모)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직원들도 다 같이 나가자, 활동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은 아무래도 복무를 담당하시니까 염려가 많으시죠. 위에서 내려온 지시는 따라야 된다. 나가지 마라. 교장선생님께서 업무를 많이 전담하시고 줄여주시니까 선생님들도 다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2021.06.03. 정성실 심층면담)

불분명한 업무분장 속에서 들어가는 업무들
학교조직 내에서 교무행정원은 교원의 교수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교무·

행정을 비롯한 각종 분야에서 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무분장이 되어있지 않다. 교무행정원의 업무는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업무분장이 된 후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잡무를 처리하거나, 과도한 업무가 배정되기도 한다. 또한 교직원들을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이 꺼려하는 업무들도 교무행정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불명확한 업무분장은 교무행정원들의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교무실무사의 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교원들과 교무실무사 두 집단 모두 과도한 업무량과 불분명한 업무분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으며, 명확한 업무분장 기재와 교무실무사의 업무분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개선을 개선점으로 보았다(박은경, 2019). 연구참여자들 역시 직무종류와 범위를 정해놓지 않은 과도한 업무들로 인해 학교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직무물입도와 업무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학교구성원들 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위험성을 내포할 가능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내 교직원의 민주적인 업무분장 활성화가 요구되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무행정원 표준안의 재정비 및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추가 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작년에 선생님들이 다 업무를 가지고 있고 약간 그냥 평범하게 하는 교무행정 업무를 했었어요. 그냥 품의 올려달라는 것 좀 올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청소용품

구입하고 학습준비물 계획 세우고 구매 올리고 하는 거 다음에 또 하나 뭘 하라 하더라.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무가 하나들 늘더라고. (2021.04.22. 이궁정 심층면담)

어떤 업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자체가 업무니까. 난 지금 교무실을 지키고 있는 교무행정원 업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장표에는 없지만 옛날에는 빈자리가 생기면 그 일을 대신 하러 가고, 갑자기 급식소에 인원이 없네, 갑자기 아파서 어디 갔어. 가서 일손을 거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는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공문에 그 문구 있잖아요. 교무행정원 업무분장표 예시로 나온 거. 그거 예시일 뿐인데 학교에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 업무 전부 다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밑에 당구표시로 학교규모나 업무량에 따라 분장하세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1.04.24. 조강한 심층면담)

몇 차례에 걸쳐 논의를 거치고 선생님들과의 면담을 거치는 등 나름의 합의점을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게 되었다. 강제적이진 않았지만 우리의 의사를 계속 존중해주셨고 물어봐 주셨다. 그런데 회의는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다수였고, 우리는 단둘뿐이었다. 그리고 교총에서 방과후학교 업무를 교사에게 맡기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건지 지침을 만든 건

지, 선생님들 앞에 그런 내용의 복사물이 있었다. 강력한 노조, 부럽다. (2021.03.05. 김행복 메모)

방과후학교 업무를 처음 맡은 데다가 준비 없이 갑자기 맡았더니 어렵더라고요. 3월에는 방과후학교 출석부가 자주 바뀌었어요. 정말 매주 바뀐 것 같아요. 다른 업무도 3월에 몰아치는데 방과후학교 출석부는 바뀔 때마다 수정해놓아야지 수업에 지장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2021.06.03. 정성실 심층면담)

학교 정규직과 차별된 처우 환경

교무행정원이 학교 비정규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급여체계와 위험근무수당, 장기근무가산금 인상, 자녀학비보조수당 인상 등의 변화를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교육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처우개선 수당지원은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정년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학교 정규직과 대비하여 임금격차가 심해지는 보수차이 현상에 대해 임금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조리원, 사서 등의 임금 수준을 정교사와 기능직 10급 공무원과 비교하였을 때 10년 근무의 경우 정규직 대비 50%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년을 근무할 경우 격차가 매우 심해지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학교비정규노동조합, 2012), 교무행정원의

근무연수는 임금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 조직에 대한 헌신을 떨어뜨리고 고용안정을 비롯한 처우관련 불평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정규직이었던 교무행정원을 교육공무직이라는 직종 아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형태는 중규직이라는 직급을 양산해내었으며,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수준이나 복지 혜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들이 제도적으로 정규직이 될 가능성 또한 어렵다고 전망되기 때문에 학교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 간에 갈등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임금격차를 완화시키고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안에 정말 관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무기계약이 되어서는 그런 불안감은 없었지. 그런데 나는 만 60세에 퇴직을 하면 5년 동안 별이가 없어. 국민연금도 만 65세부터 나오고. 아직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처우개선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아서 퇴직 준비를 많이 못 했거든. (2021.04.29. 이금정 심층면담)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교무행정원이 방학 때는 쉬었어요. 근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기를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혼이나 한 달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왔긴 했지만, 생계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 급여로 살 수 있겠냐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지금도 최소의 임금을 받는 수준에 가깝더라고요. (2021.04.17. 조강한 심층면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수업과 재택근무가 현실화되었다. 그런데 학교의 책임자들과 교무행정원은 필수인력으로 구분이 돼서 재택근무를 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다. 교무행정원은 코로나에 안 걸리냐? 코로나로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우리 딸은 등원을 못 한다. 우리 딸은 누가 보는 거지? 도대체 저런 말도 안 되는 공문은 누가 쓴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20.05.01. 김행복 메모)

우리 근속수당이 1년에 4만 5천원 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도 학교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고 연차가 오래돼도 급여는 늘 최저시급 언저리라는 게 속상해요. (2021.06.03. 정성실 심층면담)

학교업무 전문가로 거듭나기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무행정원의 처우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정규직 교직원들과 비교하였을 때 임금수준, 복리후생수준, 계약기간 등 근로와 관련된 모든 처우와 형태에서 제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교무행정원으로서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교사들이 행정실무사 제도로 인해 교육 본연의 활동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평가한 내용과(한상훈, 2015) 교무행정 지원인력 제도로 인한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효과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최용석, 2015)들로 미루어 볼 때 학교현장에서 교무행정원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업무가 보다 정교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교무행정원의 전문적인 업무 지식과 정보처리능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학교업무 전문가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교무행정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질 높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서 같은 거. 그것도 많이 줄었고, 이제 지원청 자체에서도 쓸데없이 똑같은 걸 생산해내는 거를 많이 없애버렸어.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넘어 갈 것 같고. 좀 있으면 돌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교무행정원이 지금 일을 맡아도 전에만큼 그렇게 일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돼. (2021.04.22. 이궁정 심층면담)

교원업무를 지금 처음으로 빼고 있잖

아요. 젊은 선생님들은 수업 외에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이 젊은 세대의 선생님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우리가 교무행정 업무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2021.04.17. 조강한 심층면담)

저희가 업무를 하니까 계속적으로 선생님들은 업무를 안 하겠죠. 근데 저희는 업무를 이제 파이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진짜 저희는 업무 전문화가 될 것 같고. 선생님들이 진짜 수업적으로만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는 진짜 내가 업무 마스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2021.04.17. 김행복 대화록)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이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초등학교 교무행정원들의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 대화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학교생활 경험을 어떤 의미 주제로 구성할 것인지 구조화하였다. 구조화 이후 의미주제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선정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3차원적 공간의 내부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

구참여자들의 내러티브 풀어내기를 통해 의미주제들에 따라서 경험을 구조화한 결과, 교무행정원이 된 계기, 학교에서 근무한다는 뿌듯함, 끊임없이 주어지는 업무, 밀려오는 차별과 회의감, 미래에 대한 기대로 나타났다. 이공정과 조강한은 교무보조라고 불리던 시절부터 근무를 하면서 온갖 잡무를 다 맡았으며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퇴근하여 자녀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해했다. 하지만 계속 밀려드는 업무 속에서 차별과 불편함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학교에 대한 애착이 높은 편이며, 학교에 늘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김행복과 정성실은 최근 공채형태의 교육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어 앞의 두 참여자 보다는 차별과 불편함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무행정원이 된 후 현실은 학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소외감, 업무과다, 복지문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들은 앞으로는 교무행정원이 학교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 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공간을 염두에 두고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살아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들의 경험이 어떠한 의미인지 경험의 의미를 형성하고자 하였다(Clandinin & Connelly, 2000). 내러티브 분석을 바탕으로 경험이야기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경험의 의미를 살펴본 결과, 무기계약직으로 학교에 근무한다는 자부심, 편견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기, 관리자에 맞춰가는 업무 행동들, 불분명한 업무분장 속에서 들어가는 업

무들, 학교 정규직과 차별된 처우 환경, 학교 업무 전문가로 거듭나기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교무행정원으로서 정년보장에 따른 안정감과 교육활동에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료들로부터 업무에 대한 지지와 인정을 받았을 때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교무행정원이 교무보조라고 불리던 과거의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잔존해 있어 내면적으로 여전히 불평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이 불분명한 까닭에 학교생활에서 소외감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학교조직 문화에 적응하고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기 위해 관리자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불명확한 업무분장과 과도한 업무, 정책적으로 불평등한 처우 환경 속에서도 직무에 책임을 다하며 교무행정원이 언젠가는 학교업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의 관심이 연구자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연구문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개인적, 실제적, 사회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본다(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적 정당성 측면에서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 과정 동안 연구자 자신이 내러티브 공간 안에서 과연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대해 끊임 없이 반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연구자의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의 삶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게 되

었다. 연구의 전 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와 많은 시간을 나누는 동안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이 들려주는 삶의 발자국을 충실히 따라가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원들이 단순히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편하게 일을 한다고만 생각했을 뿐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학교의 갖은 업무들을 처리하며 근무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 연구의 전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초등학교 교무행정원으로 근무하면서 겪는 학교생활과 다양한 감정들, 그리고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무행정원들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도 마련하였고, 연구참여자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자가 겪었던 부정적인 정서들이 완화되는 경험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무행정원의 업무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일조하며, 교무행정원의 직업 전망이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이 기대됨에 따라 교무행정원으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도 학교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숨기려고 하거나 피하려하기 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교무행정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교무행정원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동료들과의 추억들도 되새겨 보면서 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교무행정원이 되고자 노력하려는 교무행정원들의 마음도 나타났다.

실제적 정당성 측면과 관련해서 연구참여자들이 초등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과거의 교무행정원은 지시와 요청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했다고 하면 현재의 교무행정원은 교내 업무 전반의 보조 역할과 동시에 교무행정업무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또한 스스로를 중심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교무행정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는 것에 자부심과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교무행정원은 수행해야 하는 업무범위가 폭넓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직무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훈련의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며, 교육훈련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조직몰입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김미성, 2018)와 같이 교무행정원의 능력 개발 및 업무향상과 관련된 연수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업무보조가 아닌 실질적인 담당업무를 분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문교육 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과거에 비해 교무행정원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계적인 분위기 속에 교무행정원들을 하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교무행정원에 대한 지지와 명확한 소속감, 그리고 업무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교무행정원들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협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사회적 정당성 측면과 관련하여 교무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학교현장에 배치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한 노력은 교사로 하여금 교육활동 외의 부차적인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에도 여전히 제고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교무행정원이라는 직종이 가진 업무의 특성과 학교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었으나, 교사와 행정직 공무원들과 비슷한 업무와 업무량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보수나 신분, 복리후생 제도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무기계약 전환 이후 고용불안감 감소로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나 처우개선 만족도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나 담당업무를 명확히 하고 임금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한장석, 2016). 따라서 교무공무직으로서 교무행정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공정한 업무분장을 마련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는 교무행정원의 직종 및 업무에 대한 법제화, 경력이 반영된 임금체계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교무행정원들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초등학교 교무행정원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교 교무실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무행정원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 탐색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역시 자아성찰과 자기반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이들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둘째, 그동안 이루어진 교무행정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산실무사를 비롯한 과학실무사, 교무행정사, 조리사 등 교무보조인력이나 교육공무직원의 전체 직군에 대한 운영실태나 근무 여건에 관한 연구만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교무행정원이라는 단일 직군의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무행정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끌어내며 이들의 발전과 성장을 고찰해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셋째, 교무행정원에 대해 선행된 기존의 연구들은 교무보조 인력의 운영실태나 근무여건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오면서 교무행정원이 처한 근로여건이나 업무환경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교무행정원들의 처우나 환경개선에 관한 제도적인 측면들과 더불어 교무행정원들의 직접적인 인식에 관해 살펴보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풍부하고 새

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교무행정원의 지위향상과 학교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학교급에 따라 경험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이 어떠한 학교생활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G지역에서 근무하는 교무행정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각 시·도교육청 마다 교무행정원에 대한 인식이나 직무 환경 조건이 각기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의 교무행정원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2).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5). 2014 교사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6).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서울: 교육부.

- 김미성 (2018). 교육공무직원 교육훈련 실태 및 효과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 (2015). 초등학교 교무실무사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2019). 학교업무 최적화를 위한 교무실무사 역할에 관한 인식 분석: 전북교육청 교무실무사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나, 신나리 (2013). 보육교사의 소진과 관련된 직무만족도와 직장 내 사회적지지. *생애학회지*, 3(2), 73-85.
- 이길환 (2018). 교무보조 인력 배치사업 효과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2014). 행정실무사 운영실태 분석: 경기도교육청소속 교무실 근무 행정실무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 (2014). 행정실무사와 교원의 관계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용 (2015). 행정실무사의 학교 조직 내 역할 갈등 및 정체성 형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국학교비정규노동조합. (2012).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자료집. 서울: 전국교육공무직 본부.
- 조상식, 박종배, 성병창, 박채기, 남경희, 이상철, ..., 전수빈 (2016). 교원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서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원.
- 최용석 (2015). 교무행정지원 인력의 운영 실태 연구: 인천광역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훈 (2015). 경기도 초등학교 행정실무사 제도 운영 실태와 정착방안.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장석 (2016). 교육공무직원 근무여건에 대한 인식 연구: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실무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uch-Feldman, C., Brondolo, E., Ben-Dayana, D., & Schwartz, J. (2002).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7(1), 84-93.
<https://doi.org/10.1037/1076-8998.7.1.84>
- Clandinin, D. J. (2013). *Developing qualitative inquiry: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CA: Left Coast Press.
- Clandinin, D. J., Caine, V., & Lessard, S. (2018). *The relational ethics of narrative inquiry*. New York: Routledge.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https://doi.org/10.3102/0013189X019005002>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2000).

- Narrative understandings of teacher knowledge. *Journal of Curriculum and Supervision*, 15(4), 315-331.
- Denzin, N. K., & Lincoln, Y. S. (2018).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 Kim, J. H. (2016). *Understanding narrative inquiry: The crafting and analysis of stories as research*. New York: Sage.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 book of new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and moral educ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1 차원고접수 : 2021.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6.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Narrative Inquiry into the School Experience of Administrative Staff in Elementary Schools

Kim, Min Jeong

Kim, Yu Na

Cho, Han Ik

Dept.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chool life experiences of administrative staff working in elementary schools and what their experiences mean. For this purpose, researchers selected four administrators working in elementary schools in G area and conducted the study using a narrative inquiry method. The research materials were interviews, participation observations, field notes, and research journals.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were explored according to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of time, space, and place. The research process went through the steps of entering the story, being in the story, constructing the field text, and converting the field text to the research text. Through the narratives released by the participants, pride in working at the school as an indefinite term contract worker, living in prejudice and alienation, work behaviors tailored to school administrators, increasing amount of work, discriminating environment from regular school employees, and the rebirth of a schoolwork expert were confirmed.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eeks to understand the school life experiences of administrative staff working in elementary schools and raise social and policy interest.

Keywords: administrative staff, school experience, narrative inquiry